



보건복지부  
질병관리본부

# 보도참고자료

배 포 일	2019.1.22. (총 3 매)	과장 / 담당	전 화
질병관리 본부	감염병총괄과	박 옥 / 이윤희	043-719-7120 / 7111
	국립여수검역소	소상문 / 명고은	061-665-2367 / 2369
	국립제주검역소	김주심 / 박선환	064-728-5502 / 5505
전라남도	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	전두영 / 윤연희	061-240-5210 / 5213

##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, 환경감시 강화

- ◇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(1월 14일 채수)
- ◇ 병원성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 강화
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, 함평군 월천포구 및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되었다고 밝혔다.
-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11개 국립검역소 및 2개 시·도보건환경연구원(인천, 전남)과 연계하여 '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패혈증균 실험실 감시사업'을 운영하고 있으며,
- 본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제주검역소가 2019년 1월 14일에 채수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(2019년 1월 18일)되었다.
-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℃ 이상 상승하는 5~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하여 8~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.

-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예년 대비 2~3개월 빨리 검출되었으나, 아직 해수의 온도가 낮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의 위험은 낮은 상황이다.
-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강화된 비브리오패혈증균 환경감시를 지속 운영하여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.
- 특히 2019년부터 병원성 비브리오 감시사업의 감시 기간을 확대하여, 이전 하절기(4~10월)에만 감시하던 지점을 연중(1~12월) 감시 체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.

<붙임> 발생통계

**붙임**

**발생통계**

□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균 첫분리시기

연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	
구분									
해수 내 분리 (월일)	4.1	3.18	4.7	3.14	3.13	3.20	1.14.		
분리장소	인천	전남 목포	부산 신항만	전남 여수시	전남 영광군	전남 여수시	전남 영광군	전남 함평군	제주시
해수온도 (도(℃))	10.2	9.0	12.5	9.2	7.1	10.0	5.4	4.2	15.4

\* 자료원 : 해양환경내 병원성 비브리오패혈증균 실험실 감시사업

□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현황

(단위 : 명)

연도	월	발생건수 (사망자수)	연도											
	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'18년		49(20)	0	0	0	1	0	2	8(3)	16(8)	10(6)	11(3)	1	0
'17년		46(24)	0	0	0	1	0(1)	1(1)	2	13(8)	19(11)	9(3)	1	0
'16년		56(12)	0	1**	0	0	0	2	5(2)	20(4)	17(4)	9(2)	1	1
'15년		37(13)	0	0	0	0	0	5(1)	5(2)	4	17(7)	5	1(2)	0(1)
'14년		61(40)	0	0	0	0	1	2(2)	6(5)	10(4)	32(21)	9(7)	0	1(1)
'13년		56(31)	0	0	0	0	0	0	5(3)	12(6)	23(13)	15(8)	1(1)	0

\* 2018년 자료는 잠정통계로 변동가능

\*\* 해외유입